

“딸기 육묘 늦지 않게 시작하세요”

강진군, 우량묘 생산 위해 좋은 어미묘 적기 정식 “어미묘 적절한 약제 살포해 해충·병균 사전 예방”



딸기재배 농민들 사이에서는 ‘모종이 반 농사’라는 말이 거의 정설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딸기재배에 있어서 모종 농사가 중요한데 최근 모종농사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딸기육묘의 첫걸음인 좋은 어미묘를 적기에 정식하도록 지도하고 나섰다.

다. 보통 3월 하순이 적당하고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정식해 자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어미묘는 병이 없는 것으로 선택해 심은 다음 병해충 관리를 잘하는 것이 1년 농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민들은 딸기를 수확해서 판매하는 시기와 육묘 시기가 한 달 이상 겹치므로 시기를 놓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 관계자는 적기 정식을 강조하면서 “어미묘를 정식할 때 가장 먼저 배지 및 장비를 소독해줘야 하며, 혹시 어미묘에 묻어 있을지 모르는 해충과 병균에 대해 적절한 약제를 살포해 사전에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미묘 정식 후 초기 관리에서 쓸모 없는 하엽 제거 작업과 액아 정리를 철저히 해 주고 병 감염이 의심되는 약한 모종은 솜아주기를 실시해 균일한 육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부터 원묘 보급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다. 유전적으로 깨끗한 묘를 해마다 만들어 육묘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기술센터 내 유리온실에 딸기 원묘 500주를 정식했다. 이곳에서 증식한 무병모종 3,000주는 관내 딸기 육묘 농가를 대상으로 9월에 적정 금액을 책정한 후 판매할 계획이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딸기 재배에 있어서 육묘가 중요하며 시기를 놓치면 좋은 모종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시기를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관내 딸기 농가에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육묘 정식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원도심 ‘초콜릿 마을’로 조성

초콜릿 체험·판매 특화거리 조성...지역특산물 활용 수제초콜릿 체험·판매

해남군 원도심에 초콜릿 마을이 조성된다. 해남군은 ‘땅끝 초콜릿 마을’을 지역 브랜드로 내걸고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한다.

땅끝 초콜릿 마을은 ‘연인들의 성지, 초콜릿 체험과 문화가 있는 곳, 땅끝 초콜릿 마을’을 핵심 콘셉트로 해남 상권의 중심지인 읍내리·성내리 일원에 테마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수제초콜릿 체험장과 판매장 등 거점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상가들은 초콜릿 북점매장화를 추진하고 신규창업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해남군 특산물과 초콜릿을 결합해 해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수제 초콜릿을 개발, 판매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콜릿을 주제로 한 상권 조성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색있는 개별여행을 선호하는 2030 세대와 어린 자녀가 있는 3040 가족을 주 타겟층으로 해 수제초콜릿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로컬브랜드로 관광 명소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초콜릿 점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상인 교육이 시작되며, 앞으로 5년간 초콜릿 관련 공동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개발과 특화상품 개발, 여행객 유입 이벤트 행사와 마케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해 매일 시장을 비롯해 읍내리와 성내리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재)해남문화재단에 신설된 상권활성화팀에서 실시하며, 민·관·상인·전문가로 구성된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남군 땅끝 초콜릿 마을 조성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한반도의 시작인 땅끝 해남의 이미지를 담아 초콜릿 마을이라는 지역브랜드 전략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초콜릿 마을이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진도군, 군강공원 정비로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진도군이 특색있는 도시숲 등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올해 추진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명품 가로수길, 주민단체 생활환경 숲 등 생활권과 도심권 유후지 7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열섬·폭염 완화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관 불량지 등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으로 조성한다.

특히 군은 올해 시행되는 진도읍 군강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그동안 방치된 고사목, 수형 불량목 등을 제거했다.

또한 무궁화, 목마가렛 등 수목 식재와 휴게 시설을 정비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진도군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진도군의 탄소중립 실현과 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군민이 숲의 공익적 기능을 누리 고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 농업 발전 이끌 인재 양성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올해 35명 입학, 지난해까지 428명 수료, 올해 스마트 농업반 운영

완도군은 지난 28일 농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제 13기 완도군 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심만섭 총동문회장 및 기수별 동문회장, 입학생 35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입학식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자기소개와 학사 일정을 공유하고, 김희연 강사의 ‘농업인대학 교육생의 건강관리’ 특강이 진행됐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스마트 농업반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수와 채소, 특작 등 친환경 재배 기술, 토양 및 병해충 방제 기술, 유통·마케팅,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법률 이론, 현장 실습, 우수 농가 견학 등 총 25회, 111시간의 학사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장흥 회진면, ‘꿈나무 책 배달 지원사업’ 추진

장흥군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영금, 황호연)는 올해 3월부터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희망 도서를 구입하여 증정하는 ‘꿈나무 책 배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꿈나무 책 배달 지원사업’은 TV·스마트 폰 등 영상매체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원하는 도서를 신청 받아 해당 도서를 구입하여 증정하는 사업으로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노영금 공동위원장은 “회진면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책읽기 습관을 통해 두뇌 발달과 정서 함양,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